

암(癌)을 앓고 있는 이를 위하여

김건열/서울의대 내과교수

어떻게 하다보니까 병에 걸렸고 한두 해 병치레를 하다보니 만성병을 가지고 오랜 투병생활을 하는 환자가 된 분을 위해서 신병의 실체와 병을 생각하는 마음의 지혜를 나누어 보고 싶어진다.

병 걸린 것이 무슨 종류의 병이든 자기 가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유전병이라고 조상탓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병이 생겼는지조차 모르고 또 왜 병이 재발하고 악화되는지도 모르고 지내온 분을 위해서 병을 다스리고 투병하는 의욕과 삶의 생각을 나누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어짜피 우리 모두는 40대가 지나면 질병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여 누구나가 육체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모두 환자라는 생각도 되여진다. 무엇인가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드려 혈압이 오르고 (고혈압증) 설사증이 생기며 (신경성장염) 위장병, 신경염, 정신질환, 노이로제 등으로 신체 증복화(身體症伏化—sometization)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경이 약한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발현되는 사람도 있다.

또 설혹 육신과 마음의 병이 지금은 없는 사람이라도 사소한 가족간, 또는 직장인 간의 문제로 긴장과 갈등상태로 지나가는 가운데 긴장성 두통, 불면증, 전신피로증 등 질병전구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엄격한 의학적, 신경정신과적 진단기준을 적용한다면 무슨 병명이고 간에 붙게 마련이다.

그것도 한 두가지 병이 아니고 평균 3~4개의 지나친 병명이 붙게 마련되어있다. (예 : 동맥경화증, 퇴행성관절염, 만성기관지염내지는 폐기종, 만성염역, 신경염 등은 가령(加令)과, 더불어 누구나 갖는 병이며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병, 신경장애, 우울증 등등)

또 어떤 사람은 암(癌). 암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시한부인생이라할까 5년미만의 남은 인생여정을 놓고 많은 고생을 하며 투병하는 암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도 같이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 앞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병이고 누구의 인생이던, 그리고 동물이던 식물이던 인간이던간에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대한 것이고 끈질긴 것이며 누구의 소유이던 붙어 있는 생명의 기간은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보다 앞으로 살아갈 일년의 인생이 또 다른 사람의 10년의 일생만 못하다고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나의 1개월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10년의 세월보다 더 귀하다고 해도 틀릴 수 없는 서로 다른 가치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어찌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속의 이 공간과 시간을 우주속에 한 작은 시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1년과 10년의 차이는 없다고도 할 수 있어 얼마간의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그 기간보다도 그 기간사이를 어떻게 소중하게 사느냐에 대해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인간의 질병은 확실히 인류의 천적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인간 두뇌개발 및 과학발달의 궁극의 큰 목표이겠지만 오늘의 현시점에서는 인간 질병 발생원인의 아주 적은부분 밖에 모르는 것이 인간의 현재의 지식한계에서 아직도 인간의 질병을 정복한다는 것은 요원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긴 질병을 잘 다스리며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어떻게 병과 같이 공존하느냐에 더 지혜는 모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현대의학의 현주소라고도 할 수 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속의 생명력은 우리 인간의 생명력과 전부터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강한 신비의 생명력을 지니고 이어지고 있으며 자연피조물의 영장인 인체의 신비와 자구능력을 힘있게 인간생명의 파수꾼으로 아픈사람이나

아픔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보다 나은 지혜와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야 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기다림속에 시간이 흐르는 사이 새로운 진단법,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약이 개발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병을 이기자는 환자의 앓는이의 마음가짐이고 의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의욕이 없는 곳에는 길이 열리지 않고 길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 투병의 의욕이 없는 환자의 암담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내가 병을 이겨야 오래 살고 내가 오래 살아야 내자식, 내손자가 오래 산다는 책임의식하에 병을 끝까지 다스리고 이기는 생활의 지혜와 의지를 갖는 것이 앓는 이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할 것 같다.

끝으로 몸이나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앓고 있는 이를 위해서 윤동주 시인의 시한 수를 같이 음미하면서 앓는 이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싶다.

서시(序詩) —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일생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卍